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주민들의 단합된 힘, 마을의 큰 자산"

김대유 조수1리장 인터뷰

데스크승인 2014.03.17 김문기 기자 | kafka71@jejunews.com



"제주에서도 워낙 외진 곳에 있는데다 바쁜 농사일로 주민들이 마을을 돌아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3,4년 전부터 청년들이 나서면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유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장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무인 농산물장터 등이 생기면서 마을이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청년회 중심으로 빈 공터를 활용한 무인 농산물장터와 무인 카페가 조성됐고, 올레꾼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들의 노력은 2013년 제주시로부터 '베스트마을 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청년회는 마을회가 제공한 땅에 직접 초가를 짓고 무인 농산물 판매장과 향토자료 전시관을 마련했다.

마을회와 청년회는 올해부터 마을 곳곳에 장미꽃을 심는 등 사시사철 꽃이 있는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 곳곳에 분포된 연못을 연결하는 탐방로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간다는 구상도 세웠다.

김 이장은 "우리 마을에는 조상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 26개 이상된다"며 "연못과 연못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만들면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기해했다.

김 이장은 "10년 전만해도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자생단체별로 개성이 강해 마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마을의 큰 자산"이라고 자랑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